

골프선수들의 의류선택에 대한 심리적 의미

한지훈^{1,*} · 임진선^{2,†}

¹연세대학교 스포츠응용산업학과, 강사

²우석대학교 스포츠지도학과, 조교수

(2020년 10월 6일 접수: 2020년 10월 29일 수정: 2020년 10월 29일 채택)

Psychological implications for golf players' golf-wear choices

Jee-Hoon, Han^{1,*} · in-Sun, Lim^{2,†}

¹Department of Sport Industry Studies, Yonsei University, Instructor

²Department of Sports Leader, WooSuk University, Professor

(Received October 6, 2020; Revised October 29, 2020; Accepted October 29, 2020)

요약 : 본 연구는 골프선수들의 의류선택에 대한 심리적 의미에 대하여 현상학적 분석 방법으로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골프투어에 참여하고 있는 남, 여 골프선수들을 대상으로 남자선수 4명, 여자선수 2명으로 총 6명을 눈덩이 표집법으로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으며, 자료분석은 심층면담과 참여관찰을 통해서 얻은 내용을 1차적으로 코딩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였으며, 2차적으로 주요 주제들이나 현상들을 중심으로 영역을 분류하여 범주화 작업을 진행하여 의미 있는 해석과 연구결과를 도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진실성과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Guba & Lincoln(1981)이 제시한 질적연구의 수행 과정에 대하여 사실적 가치(truth value), 적용성(applicability), 일관성(consistency), 그리고 중립성(neutrality)의 4가지 평가로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나에게 맞는 옷, 징크스, 그리고 내 옷은 나의 얼굴이다가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선수들이 선택한 골프의류에 대한 심리적 의미를 이해하고 골프의류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보다 선수들의 피드백을 제공 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골프선수, 골프의류, 의미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psychological importance of golf player's clothing selection by phenomenological analysis. The study subjects were male and female golf players who participated in the golf tour from October 2017 to March 2018, and a total of 4 male players and 2 female players were selected using the snow ball sampling method. For data analysis, we first coded what we got through in-depth interviews and observations of participation to be organized and analyzed first. Second, classification was conducted based on major themes or phenomena, and

[†]Corresponding author

(E-mail: lv010@hanmail.net)

* 이 연구는 2018년 질적탐구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것을 수정·보완하여 작성됨

meaningful interpretation and research were conducted. In addition, to increase the truth and validity of this study, the true value, applicability, consistency and neutrality of the qualitative research process proposed by Guba & Lincoln (1981).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Golf-wear for me, Jinx, My golf wear are my face. Conclusion, Through this study, you can understand the psychological implications of the golf-wear chosen by the golf player and expect positive effects to provide golf player's feedback in the course of making the golf-wear.

Keywords : Golf player, Golf-wear, meaning

1. 서론

골프는 멘탈(Mental)이 중요한 스포츠 중 하나이다. Jack Nicklaus[1]는 'Golf my way'에서 골프 멘탈(mental)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선행연구들을 살펴봐도 골프 멘탈의 중요사항을 강조한 연구들이 많다[2, 3, 4, 5]. 골프 참여자에 대한 심리상담, 멘탈 훈련과 이미지형성 등 다양한 방향에서 골프 멘탈을 소재로 연구되고 있다. 이는 골프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멘탈이며, 이러한 멘탈이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으며, 골프 종목의 특성을 엿볼 수 있게 한다. 골프경기가 선수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참여하고 있는 동료선수와 환경적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고, 심리적 요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여 경기운영을 해야 하는 스포츠이다[6, 7].

골프경기는 기술적인 골프스윙과 체력이 중요한 요인이지만, 이와 함께 환경적, 신체적, 개인적 그리고 심리적 요인들의 영향을 받으며 수행하는 운동경기로서 심리상태를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 유지하는 능력에 의해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다[8]. 세계적인 수준의 선수들의 경우 심리적 측면에서의 관리는 매우 중요하게 인지되고 있으며, 골프경기에서 심리적 요인들이 경기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절하고 체계적인 심리 기술은 경기력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증명되고 있다[6, 7]. Chung[9]은 골프의 경기력은 골프기술, 체력, 그리고 심리적 기술 등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또한 Lee[10]은 골프경기에서 실패를 자주하는 선수들은 심리적인 면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는 문제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골프경기는 골프의 기술과 체력 이외 다른 영향들을 많이 받지만 그중 심리적 측면이 중요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제시되었다.

일반적으로 골프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기술과 체력 그리고 심리기술(psychological skills)이 뛰어나야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1, 12, 13]. 지금까지 이론화 되어 있는 심리기술은 자신의 심리상태를 조절하여 최상의 수행을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으로, 긍정적인 자기조절, 자신감 향상, 스트레스 대처, 불안감소, 각성조절 등을 의미하며, 이러한 심리기술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목표설정, 심상, 이완, 주의집중과 같은 훈련을 하는데 이것을 학자들은 심리기술훈련(Psychological skills training)이라고 하였다[14, 15, 16]. 이러한 심리기술훈련은 심리적 방해요인에 대해 극복하기 위한 훈련으로서, 심리적 방해가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기까지 세밀하게 관찰해 나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심리적 상황으로 골프선수 타이거 우즈는 마지막 라운드에 항상 붉은색 셔츠에 검은 모자를 쓴다는 점은 궁극적으로 제시된다. 그 이유는 태국 출신인 어머니가 '염소자리'인 타이거 우즈에게 붉은색이 힘을 준다면서 16세 때부터 대회마다 입을 것을 권장했다. 다만, 붉은색은 열정과 에너지를 연상시킬 수 있으며, 이는 상대방에게 위압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한다[17]. 이런 점 들을 볼 때, 의류가 골프선수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매스컴의 발달로 인해 국내외 한국 선수들이 활약함에 따라 경기에 참가하는 모습을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민 경제 수준의 향상이 골프 대중화로 이어져 선수들이 경기 중에 착용하는 골프의류에까지 관심의 영역이 확대 되었다[19]. 골프선수들에게 있어서 골프의류는 자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골프의류는 한 눈에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뛰어

난 매개체로 의류를 통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된다[20]. 이러한 관점에서 골프선수들이 골프 시합에서 선택하는 골프의류에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의류의 선택의 속성은 성별에 따라 그 특성이나 추구하는 성향이 다르게 나타났고[21], 의류를 선택하는 부분에서 자기효능감과 의류선택의 상관성이 있다는 것을 언급한 바 있다[22].

현재 한국의 골프시장은 대중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시점이다. 골프선수들의 경우, 골프 시합에서 발생하는 의류선택의 사항들이 여러 가지의 이유나 과정을 통해 4일간의 대회에서 골프선수들은 선택하여 시합에 참여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의 목적은 골프선수들의 의류선택에 대한 미시적인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며, 이는 골프선수들의 의류선택에 대한 심리적 자료들이나 그 특성들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에 대한 선정은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고려하였다. 첫째, 골프선수들은 골프의류를 가장 오래 입어보고 활동하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 골프 선수들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둘째, KPGA, KLPGA 준, 정회원들의 구분을 두지 않고 선정 하였다. 셋째, 골프경력에 의미를 두지 않았다. 넷째, 집안환경, 소득수준에 제한을 두지 않고 연구참여자들을 선정하였다.

이와 같은 조건들에 맞는 남자와 여자 골프선수들을 선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주연구자는 질적 연구에서 사용되는 '눈덩이 표집법'(snowball sampling)을 사용하였다. 이는 개인적 친분이 있는

연구참여자를 통하여 투어에서 활동하고 있는 골프 선수들을 차례로 소개 받는 방식으로 자료수집과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 자료 방식에 근거하여 본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2.2.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심층면담과 참여관찰을 통해 주요 자료를 수집 하였으며, 연구참여자의 불편과 제약을 감안하여 연구참여자들이 시합이 없는 날을 선택하여 선호하는 곳에서 면담이 이루어 졌다. 그중, 심층면담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가게되어 부분적으로 인터뷰를 진행 하였다. 또한 신문 기사, 잡지 등을 통한 관련 자료도 수집하였다. 심층면담자료를 분석 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확인이 필요하거나 혹은 추가 자료의 수집이 필요할 경우 전화나 E-mail을 통해 사항을 확인 하거나 자료를 수집 하였다.

먼저 연구자는 자료 수집의 정확성을 위해 모든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 후 진술하는 모든 내용을 녹음 하였으며, 모든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동의서'를 설명한 후에 서명을 요구하여 동의를 받았다. 심층면담은 일대일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라포(rapport) 형성을 위하여 연구자는 개인적인 질문과 연구에 대한 질문을 반복적으로 바꾸어 가면서 질문을 하였다. 참여자 1명당 2회 이상의 면담과 1회 참여관찰을 진행하였으며, 면담은 1시간 이상, 참여관찰은 선수들이 시합하는 장소에서 진행 되었다. 제 1차면담 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평상시에 입고다니는 의류나 좋아하는 스타일에 대하여 전반적인 질문을 하였으며, 제 2차면담 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골프의류에 대한 생각과 스타일 그리고 좋아하는 의류 색상에 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초점을 두어 상세히 설

Table 1. Research participants

NO	Participants	Age	Gender	Golf career	etc
1	S.Y	33	male	19yrs	KPGA/JGTO
2	S.H	32	male	15yrs	KPGA/ASIAN TOUR
3	D.Y	35	male	20yrs	KPGA/ASIAN TOUR
4	S.M	33	male	19yrs	KPGA/PGA
5	K.M	29	female	18yrs	KLPGA/JLPGA
6	J.M	30	female	16yrs	KLPGA/CLPGA

명 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제 3차 참여관찰에서는 시합을 하는 곳에서의 모습과 행동들을 보다 면밀히 관찰하였으며, 시합이 끝난 후 오늘 옷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았다. 이러한 면담과 관찰을 통해서 심리적 작용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늘 옷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았다. 이러한 면담과 관찰을 통해서 심리적 작용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의 자료분석은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분석이 이루어 졌으며, 현상학적 연구는 인간의 경험을 탐구하는 질적연구 방법으로서, 질적연구 중 심층적이며 구체적으로 연구할 수 있기 때문에 현상학적 연구는 개인의 공통된 경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현상의 특성에 공통된 경험을 깊이 있게 이해할 때 적용된다[23, 24, 25, 26].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자료분석이 이루어 졌다.

1차적으로 심층면담에서 녹음 했던 자료를 텍스트화 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2차적으로 전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Giorgi[27]의 기술적 현상학이 제시하고 있는 4가지 단계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자는 연구의 전체적 느낌을 파악하고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전사 자료를 반복하여 읽는 과정을 가졌다. 둘째, 연구자는 의미 단위를 구분하고, 연구참여자의 경험과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셋째, 연구참여자의 일상적인 표현을 자유변경 과정을 통하여 연구참여자들이 상황이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개념들을 도출하여 주요 주제들이나 현상들을 중심으로 영역을 분류하여 범주화 작업을 진행 하여 중심의미로 나타낼수 있도록 연구자의 언어로 기술하였다. 넷째, 연구참여자의 관점에서 경험의 의미라고 할 수 있는 상황적 구조적 기술(Situated structural description)을 통해 전체 참여자의 관점에서 경험의 의미로 보이는 일반적 구조적 기술(general structural description)을 만들었다. 3차적으로는 참여관찰에서 작성한 현장일지와 메모 정리를 통해 핵심범주를 찾고 이러한 핵심범주와 다른 범주와의 관계를 연결 및 통합하는 과정을 거쳤다.

2.4. 질적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본 연구는 질적연구방법 중 하나인 현상학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질적연구는 객관적이고 통계적인 양적연구와는 다르게 연구자의 주관적인 통찰과 관찰, 해석에 중점을 두는 연구방법

이다. 이에 본 연구는 Guba & Lincoln[28]이 제시한 질적연구의 수행 과정에 대하여 사실적 가치(truth value), 적용성(applicability), 일관성(consistency), 그리고 중립성(neutrality) 4 가지 평가로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였다. 첫째, 사실적 가치(truth value)는 양적연구의 내적타당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구참여자들의 맥락에서 사실적인 것을 얼마나 발견하였는가에 대한 것이다. 이는 현장에 대한 관찰을 얼마나 사실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에 대한 참여관찰을 통해 사실적 가치를 높였다. 둘째, 적용성(applicability)은 양적연구의 외적타당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제 연구에서 융통성(transferability)있게 사용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신문자료 등의 다양한 문헌조사를 활용하며, 연구참여자들에게 결과에 대해 보여주고, 자신들의 표현을 적절히 해석하였는지에 관해 확인 작업을 거쳤다. 셋째, 일관성(consistency)은 양적연구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질적 연구에서는 의존성(dependability) 정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상학적 방법의 절차를 그대로 수용하였으며, 연구자 이외의 본 연구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연구의 분석 방법과 결과에 대해 검증을 받았다. 넷째, 중립성(neutrality)은 질적연구방법에 연구과정과 결과에 대해 연구자의 주관적인 편견이 배제된 것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는 최대한 연구자의 주관적인 의견을 배제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연구참여자의 확인 절차를 거쳐 자료를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나에게 맞는 옷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에게 맞는 골프의류가 경기력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옷 사이즈가 안 맞으면 시합을 참여하기 싫다고 나타낼 정도로 부정적 사고 유발과 집중력 저하에 영향을 미치며, 미리 원하는 옷에 기장, 옷 사이즈를 완벽하게 만들고 경기에 참여를 한다고 하였다. 이는 골프선수들이 골프스윙이나 걸을 때 편한 복장을 선호하고 본인이 원하는 복장을 고집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1.1. 부정적 사고 유발

연구참여자들은 골프의류를 선택 할 때 옷의 사

이즈가 맞지 않으면 시합에 참여하기 싫다고 느낄 정도로 심리적 부정적 사고를 유발 하게 된다고 하였다.

“저는 옷 사이즈가 안맞으면 시합 나가기가 싫어요. 솔직히 말도 안된다고 하시겠지만 옷에 대해서 조금 예민한 편이에요. 예를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어깨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어깨선이 제가 생각하는 위치에서 벗어나게 되면 스윙하는데도 불편하고 옷 모양도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합나가기 전에 완벽하게 제가 원하는 사이즈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시작을 해요.”-S.Y-

“옷을 계약해서 입지만 옷이 마음에 안들 때가 너무 많아요. 티셔츠 밑 기장이 짧으면 피니쉬를 했을 때 계속 밖으로 나오고 계속해서 다시 바지에 넣고 반복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짜증이 계속 나죠. 그리고 경기가 잘 풀리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신경이 계속 그쪽으로 가게 되죠.”-D.Y-

“가끔씩 보면 티셔츠가 짧은게 많아요. 그렇다 보니깐 피니쉬를 하면 배꼽이 다 보이고 좀 불편해요. 코스에서 연습할 때는 모르겠지만 골프연습장이나 경기에서는 그러면 매우 불편하죠. 그래서 미리 그전에 옷을 준비는 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짧게 나온 옷들은 안에 옷을 하나 더 입고해야 하기 때문에 덥기도 하고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M.J-

3.1.2. 집중력 저하

연구참여자들은 골프의류를 선택 할 때 바지의 기장이 맞지 않으면 골프를 할 때 집중력이 저하 된다는 하였다. 걸을 때나 어드레스, 퍼팅을 할 때 바지 길이가 짧거나 길거나 하게 되면 계속 신경이 바지 끝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에게 맞는 바지 길이가 일정해야한다고 하였다.

“옷은 전부 계약된 회사에서 제 사이즈를 맞게 해서 보내주는데 경기때 처음 입는 옷인데 바지 길이가 긴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짜증이 났는데. 계속해서 걸을 때도 불편하고 어드레스 때나 퍼팅할 때 계속 길이가 기니깐 신경이 쓰이고 자세가 잘 안잡히는 거죠.”-D.Y-

“여자들 같은 경우 요즘 치마가 너무 짧게 나와서 속바지가 거의 다 보일정도로 짧게 나와요. 그렇지

않은 브랜드나 제품이 있겠지만 가끔씩 그런 옷들이 있으면 너무 불편해요. 스윙도 제대로 못하겠고 계속 치마가 위로 올라와서 신경이 계속 쓰이니깐 많이 불편해요.”-K.M-

“저는 어드레스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바지 길이가 길게 되면 어드레스가 잘 서지지 않아요. 그리고 상의 같은 경우에는 어깨선이 너무 크게 되면 백스윙을 할 때 잘 돌아가지 않는 느낌이라고 할까? 스윙을 할 때 불편해서 스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너무 딱 맞는 옷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저한테 맞는 옷이 따로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는 하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신경이 쓰여서 골프를 하기가 싫고, 옷을 바꿔 입고 싶어지죠.”-S.H-

3.2. 징크스

연구참여자들은 골프의류를 선택할 때 옷 디자인, 옷의 색상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그날 코디가 안 받으면 찝찝하고 자꾸 불편한 생각들이 들게 되고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여 심리적으로 본인 스스로 징크스를 만들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경기를 잘 못하게 되면 옷에 대한 평계거리로 만드면서 자신감의 저하로 나타났다.

3.2.1. 부정적 정서 유발

연구참여자들은 골프의류를 선택할 때 옷의 디자인이나 색상이 심리적으로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내가 생각하는 디자인이랑 옷 색상을 생각하고 좋아하는 옷을 입어요. 그리고 피하는 색상도 있고 좋아하는 색상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좋아하는 옷 디자인이나 색상을 위주로 입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좋아하는 옷을 입고 시합에서 성적이 우수하면 계속 우수 했던 스타일로 입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징크스가 생기는 거 같아요.”-S.Y-

“저는 원단에 조금 예민하긴 한데 옷 원단이 너무 뻘뻘하다고 해야하나 좀 신축성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옷을 입으면 스윙할 때 불편하고 옷이 계속 불편하고 짜증이 나요.” -D.Y-

“의류 계약된 회사에 옷에 대해서 많은 제안을 했어요. 디자인이라던지 불편한 점이라던지 하지만 개선 되었다고는 하지만 옷에 대한 문제점은 꼭 있

는거 같아요. 저는 상의는 팔 길이가 좀 길었으면 좋겠고 하의 길이는 저한테 맞는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야 되고 색상이나 디자인도 너무 화려하지 않고 옷 사이즈도 너무 타이트한게 아니라 여유있는 사이즈가 되어야 하죠. 이런거 하나 하나 신경 쓰다보면 스트레스도 받고 매번 의류회사에 요청하고 하는것도 이제는 지겨운데 그래도 계속 이야기 해야죠. 제가 성적이 좋으려면 좋은 옷을 입어야겠죠.-S.M-

3.2.2. 자신감의 저하

연구참여자들은 옷을 입은 기분에 따라 시험의 성적과 상호작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의 성적이 좋지 못하면, 옷 때문이라는 핑계로 자신감을 저하 시키는 영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한 번은 제가 선택한 옷을 입고 시험을 나가서 성적이 좋지 못했어요. 그럴 때 저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이 옷이 나랑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 그렇게 생각이 드니깐 위축되고 자신감도 저하되고 다음에도 이 옷을 입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S.Y-

“저는 경기를 할 때 징크스가 많아요. 징크스라고 말하기 보다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많고 그리고 좋았던거는 계속 똑같이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옷에 경우도 제가 경기가 잘 풀리지 않았을 때 옷? 보다는 불편한 옷들이 있죠. 스윙할 때 불편하고 원단도 내가 좋아하는 원단도 아니고 하면 경기가 끝나고 그다음에는 안입게 되요. 그리고 저도 항상 마지막 날에는 붉은색 계통의 옷을 입으려고 해요. 저한테는 붉은색 계통의 옷이 잘 맞다고 해서 그렇게 옷을 입고 좋은 징크스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S.M-

“이런게 있어요. 저는 예를 들어 노랑색을 좋아해요 그래서 노랑색 옷을 입고 경기에 나가면 잘안되요.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노랑색옷은 안입게 되요. 그런데 디자인이 너무 이쁜옷인데 노랑색이에요. 그래서 한번 입어보자. 하고 입고 경기에 나갔는데 또 안좋은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기할 때는 노랑색을 쳐다도 안봐요. 옷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위축 되고 경기가 안풀려서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노랑색 옷은 안입어요.-K.M-

3.3. 내 옷은 나의 얼굴이다

연구참여자들은 골프의류에 대한 생각을 본인이 입고 다니는 옷이고 자기를 표현해야 하는 옷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였다. 항상 시험 전날에는 옷을 코디(coordination) 해보고 4일 동안 어떤 옷을 입을지 정해 놓는다. 이는 골프선수들은 4일 동안 시험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 본인을 상품화 시키고 이미지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우월감 생성으로 그만큼 옷을 잘 입어야 하고 옷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3.3.1. 우월감 생성

연구참여자들은 골프의류에 대해 본인들에게 스타일이 잘 맞아야 하며, 어디서든 돋보이고 싶어 하였다. 또한 옷으로 자신들을 잘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옷에 대한 자존심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이는 우월감 생성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시험을 다니니깐 그만큼의 이미지이니깐 옷을 잘 입어야 해요. 골프선수는 본인 스스로 마케팅을 해야하기 때문에 옷을 잘 입어야 하고 본인 스스로가 상품으로서 잘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S.Y-

“시험 전날에 항상 무슨 옷을 입을지 정하죠. 한 1시간이상? 입었다고 벗었다고 하는거 같아요. 어떤 옷을 입을지 계속 고민하고 어떤 옷이 잘 맞는지 거울보고 코디 해보고 4일 동안 입을 옷을 따로 옷장에 걸고 경기를 준비하는 거죠. 방송에 나오게 되면 더욱더 신경을 써야하고 스폰서들한테도 잘 보여 주는 것도 있죠”-S.M-

“의류 회사랑 계약 할 때도 옷이 이쁜회사?? 큰 회사?? 누구나 선호하는 브랜드 회사 옷을 입고 싶죠. 그래야 저도 돋보이고 제가 그 회사랑 계약을 했을 때 사람들이 좀 다르게 보고 주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고 또한 좋아 하는 옷 브랜드랑 계약 했기 때문에 자신감도 생기고 멋있잖아요~.”-S.H-

4. 논 의

본 연구는 골프선수들이 골프의류를 선택하는 과정에서의 심리적 의미를 심층인터뷰와 참여관

찰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나에게 맞는 옷, 징크스, 내 옷은 나의 얼굴이다에 대한 개념이 결과로 도출 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골프선수들의 의류선택에 대한 심리적 의미로서 자신에게 맞는 옷에 대한 개념이 도출되었으며 이에 따라 부정적 사고 유발, 집중력 저하에 대한 현상이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에게 맞는 옷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 하였으며 기능적으로 맞지 않는 옷에 대해서는 부정적 사고 유발과 집중력 저하의 원인 된다고 하였다. 선수들의 착용 의상에 따라 1차적으로 선수들의 정서 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2차적으로 자심감이나 집중력 같은 심리상태에 대한 상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계가 형성 되고 있다[29]. 골프는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경기이다[9]. 또한 집중력은 적절한 환경적 단서에 대해 초점을 유지하는 능력이며, 경기를 하는 동안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이 집중의 한 분야이다[30]. 이에 따라서 선수들은 자신이 긍정적, 부정적 사고와 정서들을 알고, 선수 스스로가 파악하는 것이 경기와 관련된 부정적 사고나 정서를 조절 할수 있다[30]. 따라서 선수들은 미리 의류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기능적인 부분에서 스폰서에게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불편 사항을 개선해야 될 것이다.

둘째, 골프선수들의 의류선택에 대한 심리적 의미로서 징크스에 대한 개념이 도출 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옷의 디자인과 옷의 색상에 따라서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고 경기에 대한 자신감의 저하에 대한 현상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골프선수들에게 불안, 압박감, 자신감, 집중력요인들은 선수의 심리요인을 결정하는 동시에 경기력을 결정하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며[31], 선수들의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자신감을 높여주는 심리적 변화에 효과적인 심리적 요인의 중요성이 강조된다[32]. 또한 선수들이 느끼는 불안의 가장 큰 이유는 실패의 공포 라는 점에서 경기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다[30]. 이러한 부정적 의미로 스포츠 현장에 징크스로 사용된다[33]. 이러한 징크스는 부정적 징조를 나타내며 경기수행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여 자신감을 감소시켜 경기력을 저하시킨다[34, 35, 36]. 따라서 불안, 자신감은 골프수행력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37] 옷의 심리적 영향에 대한 의미는 매우 중요한 요점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선수들은 옷에 대한 부정적 징크스 보다는 긍정적 징크

스를 만들고 징크스라는 부정적 의미를 하나씩 하나씩 긍정적으로 줄여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선수들이 옷의 디자인이나 색상에 대해 스폰서 측에 참여 하여 한다면 골프의류를 통해 선수들의 경기력 증진에 이바지 될 것이다.

셋째, 골프선수들의 의류선택에 대한 심리적 의미로서 본인의 옷은 본인의 얼굴이라는 개념이 도출 되었으며, 이에 따라 우울감 생성에 대한 현상이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은 본인을 표현 할 수 있는 도구로 의류를 선택 하였으며, 의류를 통한 표현이 곧 자존심과 연결 되었다. 이러한 개인의 외모관리 요인으로 자신감 향상, 미적 추구, 사회적 인정, 과시 욕구[38]와 같은 표현이 의류를 통해 제시 되고 있으며, 골프선수들이 착용하는 의류가 마음에 들 경우 우울감이 생성된다[29]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 주었다. 본 연구에서 골프선수들의 의류선택에 대한 심리적 의미는 연구결과에서 제시 되었듯 연구참여자들은의류를 통해 심리적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선수들은 본인들이 착용 하는 의류에 대한 관심이 뚜렷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으며, 선수들은 본인에게 보여지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에게 보여지는 모습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정서적인 준비는 최고의 수행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 요소이다[39]. 따라서 골프선수들은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경기전 의류 선택을 신중히 하고 다양한 여벌 옷을 준비하여 경기전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을 남겨서는 안될 것이다.

종합해보면, 골프선수들의 골프의류에 대한 심리적 의미로서 작용들은 골프선수들의 경기력 증진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러한 경기력 증진은 골프선수 뿐만 아니라 스폰서 입장에서도 브랜드 이미지 및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골프의류는 골프선수와 스폰서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전 할 수 있으며, 골프선수들에게 골프의류는 의미있는 결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골프선수들을 대상으로 골프선수들이 골프의류를 선택하는 과정에 대한 심리적 의미를 현상학적 분석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여 이론적으로 제시하였다.

먼저 골프선수들이 의류선택에 있어서 나에게 맞는 옷이 중요한 개념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부정적 사고 유발과 집중력 저하로 심리적 의미에 대한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의류에 대한 징크스 개념이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부정적 정서유발과 자신감 저하에 대한 현상들이 심리적 의미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골프선수들은 자신의 옷은 자신의 얼굴이라는 개념이 제시되면서 옷에 대한 우울감 생성이 현상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서 현장에서의 골프선수들의 의류선택에 대한 심리적 의미를 이해 할 수 있었으며, 의류 업체에서는 골프선수들에게 맞는 골프의류의 선택의 제공을 확대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골프 투어에서 활동하고 있는 골프선수들을 대상으로 한정 되었기 때문에 대상자들을 일반화 할 수 없다. 따라서 주니어 골프 선수, 프로골프선수, 아마추어들을 대상으로 세분화하여 의류선택에 대한 양적연구를 진행한다면 의미있는 연구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골프선수들이 선택하는 의류에 대한 외적 작용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며, 골프선수들의 골프용품 선택에 심리적 의미로 경기력에 관한 연구를 분석 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된다.

References

1. J. Nicklaus, "Golf my way". Simon and Schuster. (2007).
2. B. J. Kim,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Skills Training on Mental Game and Golf Performance", *Korean Journal of Sport Psychology*, Vol.14, No.2 pp. 213-233, (2003).
3. J. H. Shon, H. S. Yoo, "A case study on performance enhancement of golf athlete through sports psychology counseling". *Journal of Coaching Development*, Vol.9, No.2 pp. 125-135. (2007).
4. J. H. Huh, Y. B. Park, "The Case Study of Sport Psychology Counseling and Supporting Junior Golfers". *Journal of Coaching Development*, Vol.12, No.4 pp. 127-138. (2010).
5. S. K. Koo, J. H. Kim, Y. S. Won, "A Study on Physical, Outward Image of Perceptions and Attitudes of The Korean Professional Women Golfers". *The Korean Society of Science & Art*, Vol.16, pp.25-25. (2014).
6. A. B. Cohen, G. Tenenbaum, R. W. English, "Emotions and golf performance: An IZOF-based applied sport psychology case study". *Behavior modification*, Vol.30, No.3 pp. 259-280. (2006).
7. D. M. Kang, J. S. Chae, "Amateur and Professional Golfers' Psychological Disturbance and Coping Skills". *The Korean Journal of Sport*, Vol.18, No.1 pp.509-519. (2020).
8. W. M. Lee, J. K. Park, "How to cope with the detailed obstacles of elite golf players". *Journal of Coaching Development*, Vol.1, No.1 pp.43-59. (1999).
9. C. H. Chung, "Psychological skill training for golf game". Seoul: mujigaesa.(2000).
10. W. M. Le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strategies in problem situations during golf game". *Journal of Educational Science*, Vol.11, No.1 pp.161-169.(1997).
11. R. S. Vealey, "Knowledg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in sport psychology: A review of the sport psychologist, 1987-1992." *The Sport Psychologist*, Vol.8, No.4 pp.331-348. (1994).
12. J. M. Williams, V. Kran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peak performance. Applied sport psychology": Personal growth to peak performance, Vol.4, pp.137-147. (2001).
13. S. H. Kwon,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Skills Training on Golf Performance: A Case Study". *Korean Journal of Sport Science*, Vol.20, No.1 pp. 129-145. (2009).
14. R. S. Vealey, "Future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kills training". *The sport psychologist*, Vol.2, No.4 pp. 318-336. (1988).

15. R. S. Weinberg, D. Gould, "Foundations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Human Kinetics, (1995).
16. C. H. Chung, B. J. Kim, "Understanding sports psychology". Seoul: geumgwang, (1999).
17. E. K. Yoon, "Why Tiger Woods Wears Red". mk.co.kr. Retrieved from <https://www.mk.co.kr/news/home/view/2005/09/331059/> (2005, September 7).
18. E. Y. Kim, "Golf is pretty" Young people wear golf suits when they commute. Chosun.com. Retrieved from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16/2017011600490.html (2017, January 16).
19. J. H. Lee, M. J. Kim, S. H. Jeong., "Market Segmentation based on the Golf-wear Purchasers' Types and Attribute Evaluation" *Korean Journal of Sport Management*, Vol.15, No.4 pp. 79-94. (2010).
20. I. S. Koo, "A study on the Brand Perception and Preference of Golf wear". *Chungnam J Human Ecology*, Vol.20, No.1 pp. 38-49. (2007).
21. H. J. Han., M. S. Kim, "Pursued Images and Color Preferences as Determined by Mountain Gear Benefits Sough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esign Culture*, Vol.20, No.3 pp. 667-682. (2014).
22. J. M. Park, J. S. Lee, "A Study on The Influencing Factors of Purchase Intention for Smart Mountaineering Garm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0, No.10 pp. 261-275. (2012).
23. J. W. Creswell,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traditions, 2. (1998).
24. J. W. Creswell, W. E. Hanson, V. L. Clark Plano, A. Morales, "Qualitative research designs: Selection and implementation." *The counseling psychologist*, Vol35, No.2 pp. 236-264., (2007).
25. Y. S. Lincoln, N. K. Denzin, (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Sage (1994).
26. J. A. Smith, "Qualitative psychology: A practical guide to research methods." Sage Publications, Inc.(2003)
27. A. Giorgi, "Sketch of a psychological phenomenological method. In A. Giorgi (Ed.)", *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research* (pp. 8-22). Pittsburgh, PA: Duquesne University Press.(1985).
28. E. G.. Guba, Y. S. Lincoln, "Effective evaluation: Improving the usefulness of evaluation results through responsive and naturalistic approaches." Jossey-Bass. (1981).
29. H. B. Kim., "Psychological effects of appearance on athlete: A focus on golfers' clothing."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53, No.5 pp. 185-196. (2014).
30. S. T. Kim, J. D. Sul,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Skills Training on the Athletic Ability of Golf Players".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40, No.1 pp. 129-146. (2001)
31. J. M. Kim., J. Y. Park, J. T. Shin, "The Effect of The Psychological Skill Training Program on Psychological Factor and Performance of KLPGA Tour Golfe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Wellness*, Vol8, No.1 pp. 105-117. (2013).
32. E. J. Kim., H. W. Kang, "A meta-analysis on the effect of psychological skills training for the golfer in korea". *Korean Journal Of Sports Science*, Vol28, No.5 pp. 225-236. (2019)
33. J. G. Yang, "Zero stress exercise method." Seoul: misodeul.(2008).
34. J. G.. Park, J. H. Jeon, "The sources of stress and coping strategies in elite tennis players". *Korean Journal of Sport Psychology*, Vol14, No.4 pp. 81-111. (2003)
35. S. E. Morgan, M. T. Stephenson, T. R. Harrison, W. A. Afifi, S. D. Long, "Facts versus Feelings' how rational is the decision to become an organ donor?." *Journal of*

- health psychology*, Vol13, No.5 pp. 644-658. (2008).
36. J. A. Shepperd, J. Grace, L. J. Cole, C. Klein, "Anxiety and outcome predict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31, No.2 pp. 267-275. (2005).
37. S. H. Kwon, Y. H. Lee, J. K. Lee, "The Influence of the Interrelationship of Psychological skills and Sport Flow on Golf Performance". *Korean Journal Of Sports Science*, Vol20, No.5 pp. 545-555. (2011).
38. S. G. Lee, A. R. Koh, "A Qualitative Approach of Appearance-Enhancement Seeking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Vol30, No.1 pp. 59-70. (2006).
39. S. R. Bray, K. A. Martin, W. N. Widmeyer, "The relationship between evaluative concerns and sport competition state anxiety among youth skiers". *Journal of Sports Sciences*, Vol18, No.5 pp. 353-361. (2000).